

# 제20차 세계표준협력회의 (GSC-20)

위규진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임희성 TTA 표준화산부 선임연구원



## 1. 머리말

세계표준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는 1998년 CCITT(현 ITU-T) 멤버 17개 회원국에서 채택한 결의안 17<sup>1)</sup>에 의거한 표준화기관 간의 협력회의로서 1990년 2월 설립되었다. 현재, 한국(TTA), 일본(ARIB/TTC), 미국(ATIS/TIA/IEEE-SA), 중국(CCSA), 유럽(ETSI), 인도(TSDSI), IEC, ISO, ITU 12개 회원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구의 표준화 추진 현황 및 핵심이슈에 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글로벌 표준화 방향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표준협력회의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래 사회의 핵심 표준화 대상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관 간의 표준개발 정보 및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표준 개발의 중복 방지 및 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표준협력회의는 3GPP/3GPP2, oneM2M 등 표준화 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를 탄생시킨 실질적인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금년 개최된 제20차 세계표준협력회의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인도 뉴델리 IHC(India Habitat Centre)에서 TSDSI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12개 회원기구와 GCF, TCCA 등의 초청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하여, IoT, 5G,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3개 전략주제 및 TTA가 제안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 강화 방안, 그리고 기관별 활동사항 발표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표준화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 2. 주요 회의 내용

이번 회의에서는 IoT, 5G,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3개의 분야를 전략주제로 선정하여 해당 주제 별로 세션 논의를 진행하여 표준화 전략방안 수립,

1) 결의안 17 내용: ITU(당시 CCITT, CCIR)의 근대화, 조직의 유연화, 효율화, 협동강화 등 4개의 주요 내용을 결의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표준화 활동을 좀 더 효율화 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

GSC 회원 기관 간의 활동 공유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기관이슈로서 TTA가 제안한 중소기업의 표준화활동 참여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각 기관의 사례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각 세션에서는 회원 표준화기구 뿐만 아니라 초청한 업체/기관의 발표와 질의응답 및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1 IoT

각 기관은 IoT 기반의 지능형 생산시스템, 스마트 시티, 에너지 절감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분야 등 응용서비스를 토의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통산업(Vertical)과 보다 효율적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모색하였다. 특히, 현재 다양한 기구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IoT 관련 표준의 분산화를 방지하고 IoT 표준과 기술의 확산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TTA를 포함한 패널 논의에서는 최근의 다양한 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IoT 플랫폼 표준화 전쟁에서 IoT 현실화 및 확산을 위해 사용자와 전통산업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보안등의 근본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oneM2M에서 작업 중인 타 표준화 기구와의 연동을 참조하여 ITU, ISO, IEC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향후 표준화기구 간 IoT 표준화 공유 및 협력사항 발굴을 통한 공동 표준화 추진과 전통산업의 IoT 표준화 참여를 통한 IoT 연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2.2 5G

본 세션에서는 5G가 기존 2G, 3G와 달리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재난통신, 무인차량, IoT, 스마트 그리드 등 사회적 기본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임에 동의하였다. 작년 ITU에서는 IMT-2020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표준화를 완료하기로 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5G 관련 기술에 대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계표준협력회의 회원 기구는 60GHz 이상의 신규 스펙트럼의 필요성과 배분에 대한 지속적 협의의 필요성과 2019년 개최 예정인 ITU의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의 논의가 중요함에 공동으로 인식하고, 5G의 주파수 선정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 2.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본 세션에서 세계표준협력회의 회원기관들은 동 분야가 5G, IoT, 스마트카, 사이버보안 등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되는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표준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표준화 기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와의 협력과 사용자, 규제 및 법제기관 등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IoT, M2M,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스마트한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증가되는 보안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번 회의부터 참여하게 된 ISO/IEC JTC1과 기존 회원들 간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4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 강화방안

이번 회의에서는 TTA에서 특별히 제안하여 중소기업의 표준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논의에서는 경제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표준화가 하나의 전략 도구임을 확인하고, 표준화 활동 참여 시 마주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 회원기관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표준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등 표준화기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도 논의되었다. 세계표준협력회의 회원들은 향후 각 기관, 국가 중소기업 표준화 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 2.5 ETSI-TTA MoU 갱신

ETSI와 TTA는 1992년부터 표준화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으며, IoT, 5G, 정보보호 및 오픈소스 등 전략분야의 표준화 협력 강화를 위해 GSC-20 회의 기간 중 상호협력협정을 갱신체결 하였다. 동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TTA와 ETSI는 표준화 관련 정보 교환 및 표준화 작업 상호 참여,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화 경쟁력을 한 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 전략을 수립할 때 기술 경쟁력과 함께 다른 표준화 기구와의 조화로운 협력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TTA는 지속적으로 세계표준협력회의 등의 회의를 통해 다른 지역/국가 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회의는 미국의 IEEE-SA의 주최로 2017년 9월 중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3. 맺음말

표준은 기술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과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만이 명실공히 성공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표준



### 누름힘 접촉 force touch (동의어: 포스 터치)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으로 누르는 힘의 강도를 인식하여 다르게 동작하는 촉각 센서 기술.

터치 위치뿐만 아니라 터치의 강도를 감지하는 누름힘(force) 센서를 더하여 사용자에게 빠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그림판에서 선을 그릴 때 약하게 누르면 가는 선, 강하게 누르면 굵은 선이 나온다. 누름힘 접촉(포스 터치)는 애플(Apple)사의 애플워치, 맥북 등에 적용되었으며, 아이폰6s에는 3가지 압력을 구분하는 포스 터치(3D터치) 기술이 적용되었다.